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2019-2020 세미나 제안서

사회진보연대 김진현

1. 세미나 취지와 목표

- 참여 단위들의 공통의 정세적 동의지반을 구축한다.
- 바이오 의약품 시대에 변화된 제약의 생물학적 특성과 정치경제학적 맥락을 분석한다.
-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세계적 추세를 파악하고 한국 운동의 공통 과제를 도출한다.

2. 세미나와 이슈페이퍼 작성 개요

- 세미나 결과는 이슈페이퍼로 정리한다. 이슈페이퍼는 30페이지 내외, 일반 시민 독자층 수준으로 작성한다.
- 기간: 2019년 7월 ~ 2020년 6월
- 횟수: 계획 논의 1회, 세미나 6회, 이슈페이퍼 작성 및 토론 4회, 최종 점검 1회 (총 12회)
- 세미나 방식: 6회 세미나에 각각 간사를 배정한다. 간사는 세미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공지한다. 공통 텍스트 1~3개는 모두 읽고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이 나눠서 요약 발제한다. 간사는 추가 텍스트를 선정하여 요약 발제 한다.

3. 세미나 기획

공통 텍스트 ①②③

추가 텍스트 ①②③

1)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특허와 기술 혁신 (간사: 김진현)

- 먼저 백승욱(2006)의 책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간단히 개괄합니다. 다음으로 윤종희(2010)의 학위논문으로 미국 해게모니 하의 대학 연구 모델 발전 과정,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의 관계 변화를 살펴봅니다. 블리옹(2006)의 책을 통해 소위 ‘지식기반경제’의 경제적 기초를 알아봅니다. Moser의 논문은 경제사의 관점에서 특허와 혁신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주류경제학자이지만, 강한 특허권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내는 학자입니다. Bloom(2017) 등이 쓴 NBER(전미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도체 개발, 종자 생산(생명공학), 신약 개발 등의 영역에서도 연구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Gordon(2018)의 논문은 계속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혁신은 둔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①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中

6장 『장기 20세기』와 해게모니 순환의 역사 p299~345

7장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p349~404

② 윤종희. (2010). 현대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역사와 지식권의 제도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中

3장 中 3. 현대적 대학을 위한 사회적 조건 p63~83

5장 中 3. 미국 연구대학의 자립화와 ‘연구혁명’ p140~154

6장 中 1. 연구경제의 위기와 대학의 생존전략, 2. 연구경제의 벨에포크와 기업가적 대학의 한계. p155~179

- 7장 中 1. 과학적 지식의 편향적 발전과 기초과학의 상업화, 2. 대학의 과학연구에서
중립성·객관성에 관한 논란 p199~216
- ③ 빌리옹. (2006). 신자본주의. 경남대학교출판부. 中
 1장 제3차 산업혁명, 2장 금융의 세계화, 3장 신경제, 신화와 역설 p17~74
- ❶ Moser, P. (2016). Patents and innovation in economic history.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241–258.
- ❷ Bloom, N., Jones, C. I., Van Reenen, J., & Webb, M. (2017). Are ideas getting harder to find? (No. w237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❸ Gordon, R. J. (2018). Declining American economic growth despite ongoing innovation.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69(C), 1–12.

2)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와 분자생물학의 역사, 바이오의 금융화 (간사: 김진현)

- 나바로(2006) 등이 쓴 책의 두 챕터를 세미나하며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역사와 오늘날의 금융화된 보건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동광(2017)의 책은 분자생물학의 역사를 정치경제 학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기초의학적 토대인 분자생물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살펴봅니다. Sexton(2011)의 글은 바이오산업과 투기금융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살펴봅니다. Cartillon(2018) 등의 워킹페이퍼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난 200여년의 평균수명과 의료비 증가 추세를 비교합니다. 언제 얼마나 수명이 증가했는지, 의학이 여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개괄합니다. Hermosilla(2017) 등의 워킹페이퍼는 인간게놈프로젝트 이후에도 유전체 의학이 임상적 치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분석합니다. Lexchin(2018)의 글은 최근 제약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이윤 창출 전략을 바꾸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 ① 비센트 나바로 외. (2006). 보건의료: 사회·생태적 분석을 위하여. 공감. 中

이현,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역사 p123~146

박찬종, 보건의료의 금융화와 사회운동의 대응 p227~254

- ② 김동광. (2017). 생명의 사회사. 궁리 中

3부 생명의 분자적 패러다임 p145~245

4부 생명의 정치경제학 p248~341

- ③ Sexton, S. (2011). The Future is Now: Genetic Promises and Speculative Finance. Global Health Watch 3: An Alternative World Health Report, 390–397.

❶ Catillon, M., Cutler, D., & Getzen, T. (2018). Two Hundred Years of Health and Medical Care: The Importance of Medical Care for Life Expectancy Gains (No. w2533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❷ Hermosilla, M. I., & Lemus, J. A. (2017). Therapeutic Translation of Genomic Scienc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of GWAS (No. w2398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❸ Lexchin, J. (2018).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Contemporary Capitalism. Monthly Review, 69(10), 37–50.

* 3, 4, 5, 6 템은 다른 분들이 간사를 맡으셔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 할 것 같은 내용들 위주로 임의로 가안을 구성해봤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주제는 가안이며 수정 가능.
- 3) 바이오 의약품의 기술 및 규제적 특성 (간사: 이동근)
 - 4) 대안적 의약품 생산 체계의 역사와 평가 (간사: 김선)
 - 5) 세계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현황과 주요 의제 (간사: 김선)
 - 6) 한국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과거와 현재 (간사: 강아라 or 권미란)